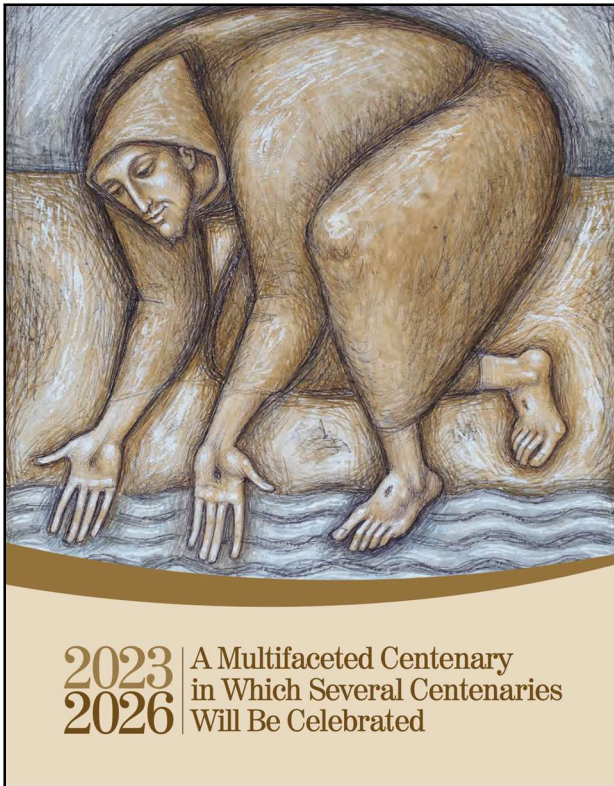


프란치스칸 기념제 활동



기념제 테스크 포스 위원장 비키 클릭은 4년간 계속될 프란치스칸 기념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회칙과 그락치오 성탄을, 2024년에는 오상을, 2025년에는 피조물의 노래와 2026년에는 사부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지난 총회 참석자들은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을 기념하는 활동으로 두명씩 짝을 지어 사부님의 생애에 관한 질문을 나누고 토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회칙을 살며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비키 자매는 “질문을 우리 삶에 연결하고 나눔으로서 더욱 친밀하고 성숙한 프란치스칸으로 성장하는 변화의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각자 다른 과정을 통해 회원이 되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생활 양식을 함께 이해하고 초점

을 맞추어야됨을 인식하였습니다. 사부님을 통해 그분의 회개 과정을 배우면서 각자 무엇이 자신의 회개를 생각하게 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비키 자매는 자신의 1982년 성탄에 시작된 가톨릭 삶과 1985년 서약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과의 형제회를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형제회 회원들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형제회, 회칙, 복음적 삶에 관한 질문을 나누었고, 양성 과정에 형제회 삶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었습니다.

프란치스칸 기념제 축하 활동과 자료는 [Centenary section of the Secular Franciscan website](#) 웹의 왼쪽하단의 “Activities and Prayer Resourc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땅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보호자 성령과 하늘의 모든 권품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빕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

